

도시민 유입을 고려한 농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주요 항목 도출 - 복지문화 요인을 중심으로 -

배승종* · 김수진** · 김대식***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교수

Derivation of Rural Service and Infrastructure Factor Considering Urban-to-rural Migration - Focus on Welfare and Culture -

Bae, Seung-Jong* · Kim, Soo-Jin** · Kim, Dae-Sik***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Dept.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rasp the push-pull factors of urban to rural migrants in relation to services and infrastructure of rural welfare and culture. Online and offline survey were conducted for urban residents who were willing to return to the rural area and those who were already returning to the rural area. In the fields of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urban-to-rural migrant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In the field of culture, leisure and sports,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concern were similar, so it was found that the expectations for the field were relatively high before returning rural area. As for the agreement degree to expand support, the demand for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dementia care program was the highest, and the demand for health care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top priority items indicate that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require support of facility and space item and expansion of program item, and urban-to-rural migrants have high demand for expansion of program item in all field except healthcare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in connection with the revitalization of policy of people return to rural area.

Key words : Urban-to-rural Migrants, Culture, Welfare, Rural Infrastructure, Rural Service

I. 서 론

전국적으로 인구성장은 정체되어 있으며, 농촌은 인구 유출로 인해 과소화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는 경제 성장 속에서 삶의 가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재인식, 베이비부머(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초반 출생자) 은퇴 등 경제·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MAFRA, 2014). 정부에서도 귀농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2009년부터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Park et al., 2012). 이러한 노력에 기

Corresponding author : Kim, Dae-Sik

Tel : +82-42-821-5795

E-mail : drkds19@cnu.ac.kr

인하여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는 귀농 가구수 및 인구가 11,961가구, 17,856명,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328,343가구, 472,47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KOSIS, 2018).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기까지는 귀농·귀촌 인식 및 동기화 단계, 준비단계, 실행 및 정착 단계를 거친다(MAFRA, 2014). 귀농·귀촌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동기화와 관련하여서는 사회·경제적 구조 요인, 도시 압출(pushing)요인, 농촌 흡입(pulling)요인, 정책 요인, 개인 의사결정 요인 등이 작용한다(Hosszu, 2009; Park and Choi, 2014). 즉, 도시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베이비 부머의 대량 은퇴, 불안한 노후보장체계, 교통통신의 발달 등과 같은 사회·경제 구조 하에 도시의 높은 생활비, 긴 통근시간, 과도한 업무, 경쟁적 일상을 피해 안전 먹거리를 자가 생산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과 생태적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는 정부의 인구이주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의해 촉진된다(Ma et al., 2016).

귀농·귀촌의 동기와 행태를 구분한 연구(Kim et al., 2011)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유형을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생계형’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 집단으로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안가치추구형’은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한 집단을 뜻하고, ‘개인생활효용형’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귀농·귀촌을 한 이후의 삶의 목적이 주로 자신과 가족 개인의 생활상의 편의나 효용에 두는 집단을 나타낸다. 귀농·귀촌의 봄이면에는 귀농·귀촌에 실패하여 도시로 재이주(역 귀농·귀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 동기와 주민과의 관계가 역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Ma et al., 2016),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도 역귀농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연령, 학력, 성별, 주거 형태, 가구소득,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 고향귀농귀촌,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의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귀농·귀촌 동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and Nam, 2015). 즉, 귀농·귀촌의 동기와 행태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요인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귀농·귀촌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동기, 정착 과정상의 어려움과 관련 요인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Park and Nam, 2015; Kim et al., 2011).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공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귀농 정책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귀촌 정책으로의 전환, 귀농·귀촌 집단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의 삶의 질과 요구를 충족하는 문화 정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해줄 정주 여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복지·문화 서비스(S/W)와 인프라(H/W)가 열악하여 도시에 비해 인구를 유치하기 불리하고, 인구 여건의 불리는 산업입지와 서비스 공급의 불리를 가져와 저발전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며, 농촌 인구 유치 및 산업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가 귀농·귀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9).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낮은 정주여건은 평생학습 기회와 문화·여가시설 이용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과 귀농·귀촌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는 경제활동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RRI, 2018).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들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포용적인 지역개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농어촌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돌아오는 농촌 구현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복지·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주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과 이미 귀농·귀촌한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귀농·귀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지역 복지문화 인프라와 서비스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 1,000명과 이미 귀농·귀촌한 주민 4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귀농·귀촌 의향자의 설문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유효표본수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6일 ~ 7월 22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latent urban-to-rural migrants)

Classification		N(%)					Total
		20 to 29 years old	30 to 39 years old	40 to 49 years old	50 to 59 years old	Over 60 years old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After retirement(G1)	0(0.0)	0(0.0)	22(6.6)	156(46.7)	156(46.7)	334
	After organizing city life with school age children (G2)	0(0.0)	129(38.7)	204(61.3)	0(0.0)	0(0.0)	333
	Single or with infants (G3)	81(24.3)	252(75.7)	0(0.0)	0(0.0)	0(0.0)	333
	sub-total	81(8.1)	381(38.1)	226(22.6)	156(15.6)	156(15.6)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urban-to-rural migrants)

Classification	N(%)				Total
	under 3 years	3 ~ 5 years	5 ~ 10 years	Over 10 years	
Return period to rural area	20(47.6)	12(28.6)	9(21.4)	1(2.4)	42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자 그룹(G1), 학령기 아동이 있는 도시생활 정리 후 귀농·귀촌 희망자 그룹(G2), 미혼 또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귀농·귀촌 희망자 그룹(G3)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별 333명~334명으로 표본 할당하였다. 각 그룹별 연령대를 살펴보면, G1그룹은 50대 이상이 93.4%(312명)를 차지하였으며, G2그룹은 30대와 40대, G3그룹은 20대와 30대로 구성되었다(Table 1).

귀농·귀촌인의 경우에는,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8개 시군(화성시, 영월군, 아산시, 증평군, 남원시, 담양군, 구미시, 거창군)에 각 시군당 귀농·귀촌인 5명(담양군의 경우 7명)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2019년 7월 15일 ~ 8월 10일까지 면담(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귀농·귀촌 기간을 살펴보면 3년 이내가 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5년 이내, 5~10년 이내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설문항목 및 분석방법

가. 설문항목

본 연구에서는 복지 및 문화에 관한 설문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Bae et al.(2019)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복지 및 문화 2대 영역에 대하여 복지는 보건의료 및 사회 복지 2개 부문, 문화영역은 문화, 교육, 여가체육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Table 3).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제외하고 각 부문별로 크게 4개 항목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복지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염려정도(귀농·귀촌 의향자) 및 체감만족도(귀농·귀촌자 대

상), 2) 복지 및 문화 인프라 시설(H/W)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정도, 3) 복지 및 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S/W)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정도, 4) 복지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우선 필요항목이다.

나.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sion 22.0)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조사항목에 대한 자료는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복지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염려정도 및 체감만족도 조사결과

귀농·귀촌 의향자의 복지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염려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가장 염려되는 시설로 ‘응급 의료시설’이 7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 시설’, ‘약국/의약품 구입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자 그룹(G1)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복지 분야 세부 항목별로 예상되는 염려/불편 정도로는 ‘영유아 보육 시설’이 5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조사되었다. 미혼 또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귀농·귀촌 희망자 그룹(G3)에서는 아동 및 영유아 보육시설이,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자 그룹(G1)에서는 노인복지

Table 3. Contents of survey

Description	Division and fields				
	Welfare		Culture		
	Healthcare	Social welfare	Culture	Education	Leisure and sports
Satisfaction level or concern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lth institutions Medical Facilities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Pharmacy Health Car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ld welfare facilities Infant day care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ocial welfar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unity facilities Living Culture Facilities Cultural infrastructure Movie theaters Living cultur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ndergarten Elementary/middle/high schoo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cademy facilities Educat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 sports facility Private Sports Facilities Village sports facility Life sports program
Agreement degree to expand infrastructure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lth institutions Medical Facilities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Pharm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ld welfare facilities Infant day care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unity facilities Living Culture Facilities Cultural infrastructure Movie the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ndergarten Elementary/middle/high schoo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cademy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 sports facility Private Sports Facilities Village sports facility
Agreement degree to expand service and program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lth promotion program Dementia care program Mental health car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fant care program Elderly classroom program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for elder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mporary special exhibition Culture and arts program Cultural experience program Operation of clubs and clubs Regional and village festiv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Youth education program Adult education program Vocational training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 sports program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 sports competition program new sports program
Top priority i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pport of facility and space, Support of equipment and material, Expansion of manpower, Expansion of program, Provision of information 				

시설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 분야 세부 항목별로 예상되는 염려 정도로는 ‘영화 상영관’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영화상영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 세부 항목별로 예상되는 염려 정도로는 ‘학원 시설’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령기 아동이 있는 도시생활 정리 후 귀농·귀촌 희망자 그룹(G2)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가 체

육 분야 세부 항목별로 예상되는 염려/불편 정도로는 ‘민간 스포츠 시설’이 4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자의 복지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은 ‘예상대로 매우 불편함’에 대한 응답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에 대한 응답을 제외하고, 편리함과 불편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건기관은 편리함의 응답률이 불편함의 응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의료시설, 응급의료시설, 약국 및 의약품 구입시설,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경우 편리함의 응답률보다 불편함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도시민 유입을 고려한 농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주요 항목 도출

Table 4. Survey results of satisfaction level or concern level

Category	Group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N=1,000) (%)					Urban-to-rural migrants (N=42) (%)						
		Positive		Normal	Negative		Positive		Normal	Negative			
		No inconvenience at all	No inconvenience	Normal	Uncomfortable	very uncomfortable	Unexpectedly very convenient	Unexpectedly convenient	Normal	uncomfortable as expected	Very uncomfortable as expected		
Healthcare	Health institutions	Total	2.0	9.5	29.5	41.4	17.6	4.8	33.3	35.7	14.3	11.9	
		G1	2.7	11.4	25.4	42.8	17.7						
		G2	1.8	8.4	28.5	43.5	17.7						
		G3	1.5	8.7	34.5	37.8	17.4						
	Medical facilities	Total	1.5	6.0	19.3	42.4	30.8	7.1	21.4	33.3	19.0	19.0	
		G1	2.1	6.0	18.0	43.7	30.2						
		G2	1.2	6.0	19.8	40.8	32.1						
		G3	1.2	6.0	20.1	42.6	30.0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Total	1.1	4.6	15.5	31.6	47.2	4.8	23.8	26.2	14.3	31.0	
		G1	1.8	5.7	12.3	36.2	44.0						
		G2	0.9	4.2	16.8	29.1	48.9						
		G3	0.6	3.9	17.4	29.4	48.6						
	Pharmacy	Total	1.5	6.0	26.0	47.5	19.0	2.4	16.7	40.5	23.8	16.7	
		G1	1.2	6.0	23.1	49.4	20.4						
		G2	1.5	8.4	24.9	47.7	17.4						
		G3	1.8	3.6	30.0	45.3	19.2						
	Healthcare program	Total	1.1	6.7	30.6	46.5	15.1	2.4	14.3	47.6	16.7	19.0	
		G1	0.9	6.9	24.9	50.0	17.4						
		G2	1.5	8.4	30.9	45.9	13.2						
		G3	0.9	4.8	36.0	43.5	14.7						
	Social welfare	Child welfare facilities	Total	4.6	11.9	31.8	38.9	12.8	4.8	11.9	42.9	16.7	23.8
			G1	9.0	18.0	30.5	36.5	6.0					
			G2	1.5	11.4	31.5	40.2	15.3					
			G3	3.3	6.3	33.3	39.9	17.1					
Infant day care facilities		Total	6.4	11.3	27.9	36.7	17.7	2.4	14.3	45.2	19.0	19.0	
		G1	13.8	14.4	26.3	34.1	11.4						
		G2	2.7	11.1	28.8	37.2	20.1						
		G3	2.7	8.4	28.5	38.7	21.6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otal	3.2	17.7	36.9	33.7	8.5	7.1	26.2	45.2	9.5	11.9	
		G1	3.9	14.4	34.7	36.2	10.8						
		G2	2.7	19.2	35.1	36.0	6.9						
		G3	3.0	19.5	40.8	28.8	7.8						
Social welfare program		Total	2.9	11.2	40.0	37.9	8.0	7.1	19.0	50.0	11.9	11.9	
		G1	3.6	12.3	34.4	42.2	7.5						
		G2	3.0	10.5	41.4	36.9	8.1						
		G3	2.1	10.8	44.1	34.5	8.4						
Culture	Community facilities	Total	5.0	24.2	43.7	21.6	5.5	9.5	45.2	33.3	9.5	2.4	
		G1	6.0	24.9	42.5	24.0	2.7						
		G2	4.8	23.4	42.9	21.9	6.9						
		G3	4.2	24.3	45.6	18.9	6.9						
	Living culture Facilities	Total	2.0	14.5	33.4	39.0	11.1	4.8	35.7	28.6	16.7	14.3	
		G1	3.0	14.7	32.9	41.0	8.4						
		G2	2.7	15.6	30.0	39.6	12.0						
		G3	0.3	13.2	37.2	36.3	12.9						
	Cultural infrastructure	Total	2.5	10.8	26.6	42.0	18.1	4.8	16.7	54.8	14.3	9.5	
		G1	2.4	11.7	25.1	47.0	13.8						

Education	Movie theaters	G2	3.3	12.0	27.0	38.7	18.9	2.4	16.7	45.2	26.2	9.5	
		G3	1.8	8.7	27.6	40.2	21.6						
		Total	2.5	9.0	22.2	40.0	26.3						
	Living culture program	G1	3.0	9.6	20.7	45.2	21.6	2.4	26.2	33.3	9.5	28.6	
		G2	3.0	10.8	25.5	35.7	24.9						
		G3	1.5	6.6	20.4	39.0	32.4						
	Leisure and sports	Kindergarten	Total	8.6	10.9	27.9	39.1	13.5	4.8	19.0	35.7	16.7	23.8
			G1	18.3	14.1	29.0	28.1	10.5					
			G2	4.5	9.3	27.3	44.4	14.4					
		Elementary/middle/high school	G3	3.0	9.3	27.3	44.7	15.6	4.8	16.7	54.8	14.3	9.5
			Total	8.1	12.4	28.7	39.0	11.8					
			G1	18.9	17.7	28.7	28.4	6.3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G2	3.0	10.8	25.8	47.1	13.2	2.4	16.7	45.2	26.2	9.5	
		G3	2.4	8.7	31.5	41.4	15.9						
		Total	3.5	12.1	30.7	39.7	14.0						
Academy facilities		G1	5.4	16.2	32.6	36.2	9.6	2.4	7.1	45.2	23.8	21.4	
		G2	3.0	12.0	27.6	41.7	15.6						
		G3	2.1	8.1	31.8	41.1	16.8						
Education program	Total	4.6	9.7	23.6	38.1	24.0	2.4	7.1	47.6	28.6	14.3		
	G1	9.3	12.6	29.0	32.0	17.1							
	G2	2.4	8.4	18.3	42.9	27.9							
Leisure and sports	Public sports facility	G3	2.1	8.1	31.8	41.1	16.8	2.4	7.1	47.6	28.6	14.3	
		Total	2.5	9.2	32.2	44.2	11.9						
		G1	4.2	9.9	38.9	39.2	7.8						
	Private sports Facilities	G2	2.1	8.7	25.8	48.9	14.4	7.1	33.3	31.0	11.9	16.7	
		G3	1.2	9.0	31.8	44.4	13.5						
		Total	3.9	16.0	33.8	36.3	10.0						
	Village sports facility	G1	3.3	18.9	35.9	32.6	9.3	4.8	19.0	42.9	14.3	19.0	
		G2	4.5	15.6	31.8	40.5	7.5						
		G3	3.9	13.5	33.6	35.7	13.2						
	Life sports program	Total	4.0	14.6	31.5	35.9	14.0	9.5	26.2	26.2	26.2	11.9	
		G1	4.8	16.8	31.7	35.0	11.7						
		G2	4.8	14.1	30.3	37.5	13.2						
Public sports facility	G3	2.4	12.9	32.4	35.1	17.1	7.1	19.0	38.1	19.0	16.7		
	Total	4.2	21.1	40.7	28.0	6.0							
	G1	4.2	22.2	41.0	27.5	5.1							
Private sports Facilities	G2	5.4	22.2	39.6	27.0	5.7	7.1	19.0	38.1	19.0	16.7		
	G3	3.0	18.9	41.4	29.4	7.2							
	Total	3.6	16.2	39.9	32.4	7.9							
Village sports facility	G1	3.9	14.1	40.7	36.2	5.1	7.1	19.0	38.1	19.0	16.7		
	G2	4.8	15.6	38.4	32.7	8.4							
	G3	2.1	18.9	40.5	28.2	10.2							

분야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복지 시설, 사회복지 프로그램 모두 ‘보통’에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아동복지 시설과 영유아 보육 시설의 경우 편리함의 응답률보다 불편함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 분야의 경우, 마을공동시설은 ‘예상외로 편리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문화시설과 문화기

반시설, 영화상영관, 생활문화프로그램은 ‘보통’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리함과 불편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편리함의 응답률이 불편함의 응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화상영관의 경우 편리함(28.6%)보다 불편함(35.7%)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통’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불편함에 대한 응답이 편리함에 대한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체육 분야는 공공체육시설은 ‘예상외로 편리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함에 대한 응답은 28.6%로 조사되어 편리함에 대한 응답 40.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민간 스포츠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보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마을체육시설은 ‘예상대로 약간 불편함’, ‘보통’, ‘예상외로 편리함’이 각각 26.2%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불편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 민간스포츠시설, 마을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불편함에 대한 응답률이 편리함에 대한 응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한편, 귀농·귀촌 의향자와 귀농·귀촌자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의향자에 비해 귀농·귀촌자의 체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문화 및 여가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염려 정도와 체감만족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귀농·귀촌 이전에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복지 및 문화 인프라 시설 지원 확대 동의 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시 복지 및 문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동의 정도를 귀농·귀촌 의향자에게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응급 의료 시설’이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시설 지원 확대에 동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별로는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설 지원 확대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의 세부 항목별 정부의 시설 지원 확대 동의 정도는 ‘노인 복지시설’이 7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자 그룹(G1)에서는 노인복지 시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그룹(G2)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지원 확대 동의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 분야의 세부 항목별 정부의 시설 지원 확대 동의 정도는 ‘생활 문화시설’이 7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 교육기관’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체육의 세부 항목별 정부의 시설 지원 확대 동의 정도는 ‘마을 체육 시설’이 6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 체육시설’, ‘민간 스포츠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그룹(G2)에서는 민간 스포츠 시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자의 복지·문화 인프라 시설 지원 확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함’ 또는 ‘매우 찬성함’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반대함’ 또는 ‘대체로 반대함’에 대한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찬성함’ 또는 ‘매우 찬성함’에 대한 응답률이 80%를 넘는 항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시설(88.1%), 생활문화시설(88.1%), 영화상영관(88.1%), 의료시설(85.7%), 문화기반시설(85.7%), 마을 체육시설(85.7%), 약국 및 의약품 구입시설(83.3%), 민간 스포츠 시설(8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분야, 문화, 여가·체육분야의 인프라 시설 지원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시설의 경우 ‘대체로 찬성함’ 또는 ‘매우 찬성함’에 대한 응답률이 59.5%로 다른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5).

3. 복지 및 문화 인프라 서비스 지원 확대 동의 정도

복지 및 문화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동의 정도를 귀농·귀촌 의향자에게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치매안심 프로그램’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치매안심/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여성 그룹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40-60대 이상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세부 항목별 정부의 서비스 지원 확대 동의 정도는 ‘노인교실 프로그램’이 7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분야 세부 항목별 정부의 서비스 지원 확대 동의 정도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6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역 및 마을 축제’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육 분야 세부 항목별 정부의 서비스 지원 확대 동의 정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68.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인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초·중·고 자녀 보유층에서 전반적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 동의 정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여가체육 분야 세부 항목별 정부의 서비스 지원 확대 동의 정도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7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 ‘뉴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귀농·귀촌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찬성함’ 또는 ‘매우 찬성함’에 대한 응답률이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66.7%)과 유아 교육 프로그램(64.3%)를 제외하면 모두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체로 찬성함’ 또는 ‘매우 찬성함’에 대한 응답률이 90% 이상으로 응답한 항목으로는 치매안심 프로그램(95.3%), 문화강좌 프로그램(92.9%), 건강증진 프로그램(90.5%)이 있었으며,

Table 5. Survey results of agreement degree to expand infrastructure(H/W)

Category	Response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N=1,000) (%)			Urban-to-rural migrants (N=42) (%)			
		Positive*	Normal	Negative**	Positive*	Normal	Negative**	
Healthcare	Health institutions	Total	81.9	14.6	3.5	71.4	11.9	16.6
		G1	85.9	12.0	2.1			
		G2	80.8	14.7	4.5			
		G3	79.0	17.1	3.9			
	Medical facilities	Total	82.4	15.6	2.0	85.8	4.8	9.6
		G1	87.4	11.4	1.2			
		G2	81.7	15.9	2.4			
		G3	78.1	19.5	2.4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Total	82.9	14.7	2.4	88.1	4.8	7.2
		G1	86.2	11.4	2.4			
		G2	85.0	12.3	2.7			
		G3	77.5	20.4	2.1			
Pharmacy	Total	81.7	16.6	1.7	83.3	11.9	4.8	
	G1	86.2	12.9	0.9				
	G2	77.5	20.1	2.4				
	G3	81.4	16.8	1.8				
Social welfare	Child welfare facilities	Total	65.2	30.1	4.7	73.8	16.7	9.5
		G1	60.2	35.3	4.5			
		G2	69.1	26.4	4.5			
		G3	66.4	28.5	5.1			
	Infant day care facilities	Total	65.2	30.2	4.6	69.0	21.4	9.6
		G1	56.3	39.5	4.2			
		G2	69.7	25.2	5.1			
		G3	69.7	25.8	4.5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otal	72.0	22.8	5.2	76.2	19.0	4.8
		G1	79.6	17.1	3.3			
		G2	69.7	24.3	6.0			
		G3	66.7	27.0	6.3			
Culture	Community facilities	Total	64.6	29.9	5.5	78.6	11.9	9.6
		G1	68.0	27.2	4.8			
		G2	66.7	27.3	6.0			
		G3	59.2	35.1	5.7			
	Living culture Facilities	Total	72.0	24.6	3.4	88.1	7.1	4.8
		G1	71.3	24.9	3.9			
		G2	71.8	24.6	3.6			
		G3	73.0	24.3	2.7			
	Cultural infrastructure	Total	69.6	26.0	4.4	85.7	9.5	4.8
		G1	68.3	28.4	3.3			
		G2	68.8	25.2	6.0			
		G3	71.8	24.3	3.9			
Movie theaters	Total	64.4	31.1	4.5	88.1	9.5	2.4	
	G1	59.3	37.4	3.3				
	G2	65.8	29.7	4.5				
	G3	68.2	26.1	5.7				
Education	Kindergarten	Total	60.7	33.7	5.6	61.9	19.0	19.1
		G1	50.9	43.4	5.7			
		G2	66.4	28.2	5.4			
		G3	64.9	29.4	5.7			
	Elementary/middle/high school	Total	62.7	31.3	6.0	69.0	21.4	9.5
		G1	49.7	41.9	8.4			
		G2	73.3	21.6	5.1			
		G3	65.2	30.3	4.5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otal	64.2	30.6	5.2	73.9	11.9	14.3
		G1	65.9	29.6	4.5			
		G2	66.7	27.3	6.0			
		G3	60.1	34.8	5.1			
Academy facilities	Total	49.8	40.7	9.5	59.5	28.6	11.9	
	G1	39.5	50.9	9.6				
	G2	57.1	34.5	8.4				
	G3	52.9	36.6	10.5				
Leisure and sports	Public sports facility	Total	64.1	30.7	5.2	71.4	19.0	9.6
		G1	64.4	31.7	3.9			
		G2	66.1	25.5	8.4			
		G3	61.9	34.8	3.3			
	Private sports Facilities	Total	49.0	38.7	12.3	83.4	7.1	9.6
		G1	47.0	38.6	14.4			
		G2	54.4	36.0	9.6			
		G3	45.6	41.4	12.9			
	Village sports facility	Total	69.9	25.9	4.2	85.7	9.5	4.8
		G1	72.2	24.3	3.6			
		G2	69.4	26.4	4.2			
		G3	68.2	27.0	4.8			

* Positive(Very agree/Agree)

** Negative(Very disagree/disagree)

도시민 유입을 고려한 농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주요 항목 도출

Table 6. Survey results of agreement degree to expand service and program(S/W)

Category	Response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N=1,000) (%)			Urban-to-rural migrants (N=42) (%)			
		Positive *	Normal	Negative **	Positive *	Normal	Negative **	
Healthcare	Health promotion program	Total	78.4	18.7	2.9	90.5	7.1	2.4
		G1	84.4	14.4	1.2			
		G2	77.8	17.7	4.5			
		G3	73.0	24.0	3.0			
	Dementia care program	Total	81.8	15.7	2.5	95.3	2.4	2.4
		G1	85.0	12.9	2.1			
		G2	82.0	15.3	2.7			
		G3	78.4	18.9	2.7			
	Mental health care program	Total	78.2	19.3	2.5	88.1	9.5	2.4
G1		80.2	18.9	0.9				
G2		78.7	18.0	3.3				
G3		75.7	21.0	3.3				
Social welfare	Infant care program	Total	65.9	28.3	5.8	66.6	26.2	7.1
		G1	59.9	34.1	6.0			
		G2	72.1	22.5	5.4			
		G3	65.8	28.2	6.0			
	Elderly classroom program	Total	74.1	21.9	4.0	88.1	9.5	2.4
		G1	79.6	18.6	1.8			
		G2	71.2	23.1	5.7			
		G3	71.5	24.0	4.5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for elderly	Total	71.7	25.0	3.3	88.1	9.5	2.4
		G1	76.6	21.3	2.1			
		G2	73.9	22.2	3.9			
		G3	64.6	31.5	3.9			
Culture	Temporary special exhibition	Total	55.9	37.3	6.8	88.1	7.1	4.8
		G1	54.5	39.8	5.7			
		G2	59.2	34.5	6.3			
		G3	54.1	37.5	8.4			
	Culture and arts program	Total	64.6	30.8	4.6	92.9	2.4	4.8
		G1	61.7	34.1	4.2			
		G2	67.9	27.0	5.1			
		G3	64.3	31.2	4.5			
	Cultural experience program	Total	68.7	27.3	4.0	88.1	7.1	4.8
		G1	64.7	31.7	3.6			
		G2	72.7	23.4	3.9			
		G3	68.8	26.7	4.5			
	Operation of clubs and clubs	Total	55.2	39.3	5.5	88.1	7.1	4.8
		G1	50.0	45.2	4.8			
		G2	57.4	37.2	5.4			
		G3	58.3	35.4	6.3			
	Regional and village festivals	Total	62.2	30.8	7.0	88.1	7.1	4.8
		G1	57.5	35.0	7.5			
G2		60.4	30.3	9.3				
G3		68.8	27.0	4.2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Total	59.0	34.4	6.6	64.3	23.8	11.9
		G1	44.9	47.6	7.5			
		G2	69.4	24.9	5.7			
		G3	62.8	30.6	6.6			
	Youth education program	Total	60.7	33.8	5.5	71.5	16.7	11.9
		G1	50.6	42.5	6.9			
		G2	70.9	24.3	4.8			
		G3	60.7	34.5	4.8			
	Adult education program	Total	67.6	28.2	4.2	78.6	16.7	4.8
		G1	65.3	30.5	4.2			
		G2	72.7	24.9	2.4			
		G3	64.9	29.1	6.0			
Vocational training program	Total	68.3	27.7	4.0	85.7	9.5	4.8	
	G1	61.4	33.5	5.1				
	G2	75.4	21.9	2.7				
	G3	68.2	27.6	4.2				
Leisure and sports	Life sports program	Total	74.0	22.3	3.7	88.1	7.1	4.8
		G1	73.1	23.4	3.6			
		G2	76.0	20.1	3.9			
		G3	73.0	23.4	3.6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	Total	66.4	30.0	3.6	85.7	9.5	4.8
		G1	63.8	33.8	2.4			
		G2	72.1	24.3	3.6			
		G3	63.4	31.8	4.8			
	sports competition program	Total	39.8	48.2	12.0	78.6	16.7	4.8
		G1	31.7	58.4	9.9			
		G2	42.0	46.2	11.7			
		G3	45.6	39.9	14.4			
new sports program	Total	42.5	43.5	14.0	76.2	19.0	4.8	
	G1	34.7	50.3	15.0				
	G2	45.9	42.0	12.0				
	G3	46.8	38.1	15.0				

* Positive(Very agree/Agree)

** Negative(Very disagree/disagree)

Table 7. Survey results of top priority items i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Description		Support of facility and space	Support of equipment and material	Expansion of manpower	Expansion of program	Provision of information
Latent urban-to-rural migrants (N=1,000) (%)	Healthcare	34.5	25.0	25.9	10.5	3.0
	Social welfare	23.9	17.5	30.0	25.0	3.5
	Culture	35.3	11.6	12.0	36.4	4.7
	Education	28.8	12.3	19.7	30.0	9.2
	Leisure and sports	37.8	19.4	12.4	26.2	4.2
Urban-to-rural migrants (N=42) (%)	Healthcare	47.6	11.9	21.4	11.9	9.5
	Social welfare	26.2	4.8	16.7	47.6	9.5
	Culture	33.3	2.4	14.3	42.9	16.7
	Education	28.6	2.4	14.3	47.6	14.3
	Leisure and sports	35.7	9.5	7.1	42.9	11.9

이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4. 복지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우선 필요항목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문별 최우선 필요항목을 조사(중복 허용)한 결과 귀농·귀촌 의향자는 시설 및 공간지원 항목과 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반면에 귀농·귀촌자의 경우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7). 귀농·귀촌 이전에는 문화·복지에 관한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간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 및 정책 지원으로 통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설 및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귀농·귀촌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와 관련된 도시민의 유입요인과 귀농·귀촌인의 압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간 농업활동 및 주거 환경 지원 중심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과 이미 귀농·귀촌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의향자에 비해 귀농·귀촌자의 체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문화 및 여가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염려도와 체감만족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귀농·귀촌 이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은 귀농·귀촌 동기 및 개인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항목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성별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응급 의료시설’과 ‘치매안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최우선 필요항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귀농·귀촌 의향자는 시설 및 공간지원항목과 프로그램 확대, 귀농·귀촌자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관련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자는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귀농·귀촌 이후 지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와 연계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귀농·귀촌자의 설문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여

러 제한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미 역귀농·귀촌한 자를 대상으로 농촌 복지·문화와 관련된 압출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가 아니라 횡단적 연구로 시행된 점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References

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2014, The Settlement Status of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Area and Related Policy Development Plan. (in Korean)
2. Park M. H., Oh N. W. and Lim J. E., 2012, Supporting Strategy for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Communit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n)
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2018, Statistical Yearbook. (in Korean)
4. Ma, S. J., Nam K. C. and Choi Y. J., 2016, Urban-to-Rural Migrants' Intention of Returning to Urban Area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6(1): 37-63 (in Korean).
5. Park, D. S. and Nam, S. H., 2015,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5(1): 41-87 (in Korean).
6. Ma, S. J., Park, D. S., Park, S. H., Choi, Y. W., Nam, K. C., Nam, S. H. and Choi, Y. J., 2015, A Trend Analysis of Urban-rural Migrants' Background, Economic Activ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7(2): 1-21 (in Korean).
7. Kim C. G., Lee H. J., Kim G. H. and Park, M. S., 2011, A Study on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Urban-to-Rural Migrants' and the Development of Rural Society. (in Korean)
8. Hosszu S., 2009, Counterurbanization., Working Paper No. 06/2009, Danish Institute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9. Park, S. H. and Choi, Y. W., 2014, Factors for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Areas and its Impacts on Korean Rural Society and Econom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n)
10. Rural Research Institute, 2018, Demand Analysis and Effective Supply of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I). (in Korean)
11. Kim S. J., Bae S. J., Kim D. S. and Im S. B., 2019, Development of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5(1): 51-65. (in Korean)
12. Bae, S. J., Kim D. S., Kim S. J., Kim S. P., Lee Y. J., Kim Y. J., Shin J. H., Jung N. S., Choi Y. W., Park J. S., Shin M. J., Lee D. Y. and Im S. B., 2019, Demand Analysis of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5(1): 113-125. (in Korean)

-
- Received 24 April 2020
 - First Revised 27 May 2020
 - Finally Revised 29 May 2020
 - Accepted 29 May 2020